



8월 2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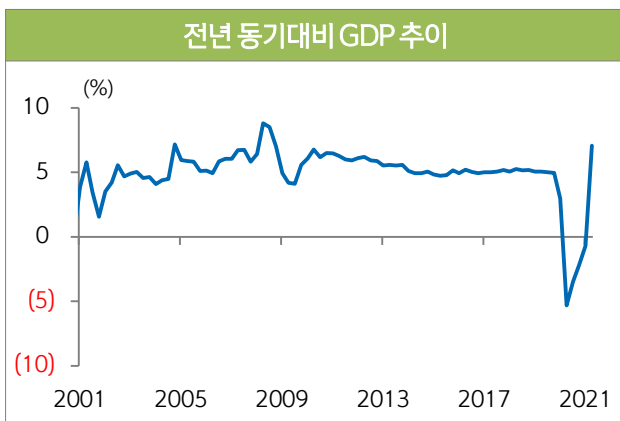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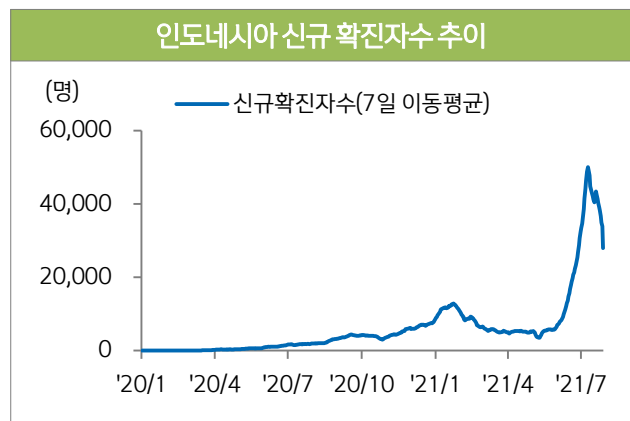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21년 2분기 성장률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불안한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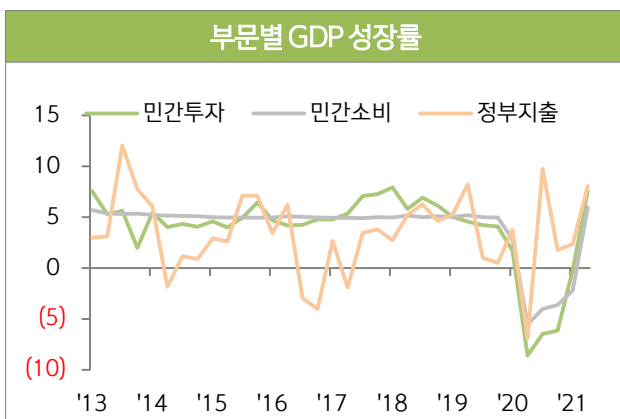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21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7.07%, 전분기 대비 연율 3.31%를 기록하였음. 지난해 2분기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5.32%임을 감안할 때 2분기에는 기저 효과에 의해서 성장률이 +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7%대 성장률 달성은 2분기 후반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수의 급증을 감안할 때 서프라이즈 수준.**
- ▶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5.93%를 기록하여 지난해 -5.52%를 감안하면 2019년 6월 수준 정도까지 회복,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8.06% 증가하였으며, 민간투자는 전년대비 7.54% 증가하였음. **4~6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가 지속적으로 50을 상회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기준치인 100pt를 상회하는 수준이 유지되면서 민간 부문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음.**
- ▶ 2분기의 양호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7월 제조업 PMI는 40.1pt를 기록하는 등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 아직 발표되지 않은 소비자 신뢰지수도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소비 급락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분기 인도네시아 GDP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전망치도 전년대비 6%대를 전망하였던 수준에서 5%대로 하향 조정됨.** 연간 성장률 전망도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4.03%로 조사되고 있음.**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회복 지연으로 경제 주체들의 부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코로나19 확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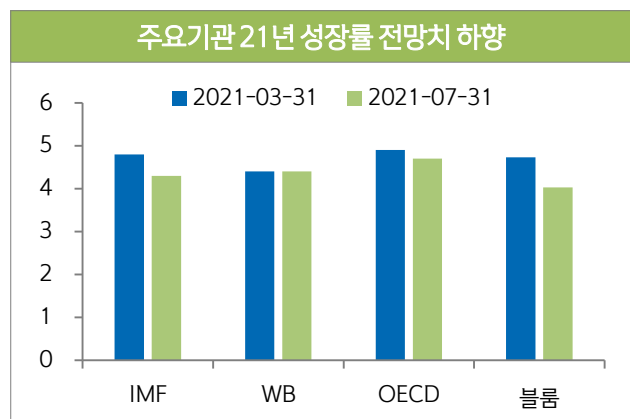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8.6	7.30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41.45	1,310.05	↑ 2.40	↑ 21.52	840.04 '20/08/06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203.43	6,070.04	↑ 2.20	↑ 3.75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4,277.72	52,586.84	↑ 3.22	↑ 13.67	36,553.60 '20/09/24	54,492.84 '21/08/05
중국	상해종합	3,458.23	3,397.36	↑ 1.79	↓ -0.43	3,217.54 '20/09/28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43.06	2,385.62	↑ 2.41	↑ 4.88	2,126.88 '20/09/28	2,503.85 '21/07/22
홍콩	H	9,273.55	9,233.22	↑ 0.44	↓ -13.64	8,879.58 '21/07/27	12,228.63 '21/02/17
	항셱	26,179.40	25,961.03	↑ 0.84	↓ -3.86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70.36	3,202.32	↑ 2.12	↑ 13.81	2,267.15 '20/10/30	3,305.21 '21/07/06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8.6	7.30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2	2.21	↓ -9.00	↓ -45.50	2.11 '21/08/03	2.96 '20/08/20
인도네시아	6.30	6.29	↑ 0.70	↑ 41.50	5.89 '20/12/30	6.98 '20/09/10
인도	6.23	6.20	↑ 3.00	↑ 36.90	5.81 '20/08/06	6.25 '21/03/10
중국	2.82	2.86	↓ -3.90	↓ -33.0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1.90	1.87	↑ 2.80	↑ 17.30	1.31 '20/08/06	2.20 '21/06/02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8.6	7.30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34.00	22,947.00	↓ -0.06	↓ -0.71	22,934.00 '21/08/06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353.00	14,463.00	↓ -0.76	↑ 2.16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16	74.42	↓ -0.35	↑ 1.48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8	6.46	↑ 0.34	↓ -0.68	6.37 '21/05/28	6.97 '20/08/07
달러-원 (KRW)	1,142.19	1,150.09	↓ -0.69	↑ 5.12	1,081.81 '20/12/04	1,189.74 '20/09/04



# 주요 뉴스





## 산업부, 게임산업 생태계 구축 모색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높은 게이미용자 저변과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 확대를 기반으로 게임 및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대규모 인구에 기반하여 단순 소비 시장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내 고유 게임 및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의욕이 높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게임 산업과 관련한 밸류체인 강화와 잠재력을 확대하여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이 좋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산업부 담당자가 말하였음.
- 정부는 게임 산업과 관련한 여러 지원 산업들(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음악, 완구 산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산업의 밸류 체인을 강화할 예정임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 국영기업, 민간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음.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산업들이 제품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정부와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지적 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는 체계임.
- 인도네시아에는 5200만 명에 달하는 게이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며, 동남아시아 최대, 그리고 세계 17위 게임 이용국가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좋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된다면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이라고 산업부는 평가하였음. 산업부에서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높은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2020년에 인도네시아 국내 게임시작에서 국내 업체의 비중은 0.4%에 불과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이 얻어나갈 수 있는 여자가 더 크게 남아있다는 판단임.
- 산업부에서는 단순히 콘텐츠 부문 만이 아니라 게임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음. 2016년에는 게임 디바이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가 게임 이용 디바이스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존 디바이스의 이용이 줄어들고 스마트폰 게임의 이용자가 증가하여서, 2017년에는 29.9%, 2018년에는 33.5%의 급속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음.
- 게임 전문 시장 조사 분석 업체인 Newzo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의 이익은 2016~2019 기간 동안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한해 인도네시아에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이 벌어들인 금액은 10.8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출처 : Antara News)



## 중앙은행, 일본 재무부와 통화 협력 강화



### ❖ 요약 및 시사점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일본 엔화 사이의 직접 결제 방식을 추가 확대하여서 통화 안정성 및 무역 결제, 직접 투자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높였음.  
안정성이 높은 엔화에 대한 직접 교환 결제 대상을 늘림으로써 루피아화 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일본 재무부는 지난 2020년 8월 31일에 이행된 양국간 루피아화-엔화 통화간 현지 통화 직접 결제(LCS) 강화에 동의하였음. 이번 결제 협력 강화는 상호 통화간의 신뢰를 높이고 통화 안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이번 조치는 양국 통화의 헷지 수단을 늘리고, 거래 및 투자에 필요한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일본에 있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이전을 유연하게 운영하여서 50만 달러 상당까지의 거래들에 대해서 별다른 문서 집행 없이 가치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8월 5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협력 강화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무역 결제에 있어서 매개 통화없이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여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도 매개 통화로 인한 환율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2019년 12월 5일 중앙은행과 일본 재무부 사이의 양해 각서에 따른 조치가 여지까지 이어오고 있음.





## 지속가능 경제 창출에 금융 부문의 강화가 중요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대중들의 금융 참여도가 낮고 금융 문맹률이 높아서 금융 산업의 강화에 기반한 거시 경제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음. 재무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대중들의 금융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재무 장관은 금융 부문의 강화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 경제 창출에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음.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안정성이 글로벌 위기와 위험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금융 부문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아직은 그러한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 발전이 다른 나라의 정책 변화와 급변동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음.
- 금융 부문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 산업에서 가장 높은 70%의 비중을 지닌 은행 부문이 먼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 업종이 취약성을 보였다고 하였음. 많은 은행 산업 부문은 신용 성장률이 급감 하였으며, 위기 상황에서 신용 창출을 하지 못 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경제에 필요한 신용 공급을 저해하여 회복이 지체되는 영향을 주었음.
- 장관은 금융 부문의 강화가 리테일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므로써 가능하다고 하였음.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매용 정부채권(SUN)을 소매용 저축 채권(SBR)의 형태로 발행하여 9,068명의 신규 투자자들을 발굴하였음.
- 투자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공격적으로 대중들의 금융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금융 산업에 대한 대중의 무지를 깨우치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음. 금융감독청이 조사한 금융 문맹률 및 금융 참여도 조사에서, 금융 문맹률은 38.03%, 금융 참여도는 76.19% 정도라고 조사되었음.
- 정부는 금융 참여도를 2024년까지 90%로 높이고, 금융 문맹률을 낮추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음.



## 재무장관, 은행들에게 회복을 위한 대출 증대를 요청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 회복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대출 확대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박도 존재함. 정책상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재무장관은 은행들에게 대출을 빠르게 늘려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 부문이 채무재조정 및 대출 회수 유예 등을 요구 받으면서 타격을 입은 것은 이해하지만 경제 회복 국면에서 그들의 자금 중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였음. 금융권에서 대출 확대를 하기 전까지 경제가 회복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단일 동력 만으로는 성장을 유지해가기 어렵다고 민간 부문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 금융 부문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중앙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금융 부문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9%라고 조사되었음. 중앙은행은 올해 대출 성장률이 5~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속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통제 조치를 지속한 영향으로 인해 4~6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대출은 6월 들어 조금 개선을 보여서 전년대비 0.59% 증가한 5,580조 루피아(3,896.8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음. 주된 대출 증가는 소매 대출에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의 증가율을 보였음. 기업들의 시설 대출은 여전히 부진하여 전년대비 -0.41%를 기록하였음.
- Permata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 성장률의 부진이 기업 부문의 대출 수요가 낮은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태도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합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에는 은행 대신 채권 발행을 선택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은행권의 총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6월에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1%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부실채권 비율은 운전대에 대해 4.1%, 시설대에 대해 3%, 소매 대출에 대해 1.91%를 기록하였음. 경제가 강한 반등을 보여줘야 대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 증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보다는 그 반대의 힘이 더 강하다고 반박하였음.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범위를 당초 4.5~5.3%에서 3.7~4.5% 범위로 하향 조정하였음.

(뒷면 계속)



-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춘다고 해도 경제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Permata 은행에서는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 최대 상장 은행인 BCA의 대출은 올해 첫 6개월 동안에 전년대비 0.3% 감소한 593.6조 루피아에 그쳤음. 그러나 채무재조정 대출을 포함한 부실 위험 대출의 비중은 올해 4~6월 기간 사이에 19.1% 수준에서 머물렀음. BCA의 6월 기본 대출금리는 기업 대출에 대해서 7.95%, 소매 대출에 대해서 8.2%로 지난해 같은 해보다 각각 2%p, 1.2%p가 낮아진 것으로 금융감독청 데이터를 통해 확인됨. BCA에서는 여전히 국가 경제의 회복 정도와 코로나19 확산세의 완화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출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음. 풍부한 유동성 환경과 경제 회복만 나타난다면 올해 대출 성장률은 4~6% 범위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 중앙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은행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밝혔음. 여기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게 가져가면서 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를 늘릴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에 석탄 전환 로드맵 준비를 요구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연구소들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석탄화력 발전의 가치 저하에 따른 관련 산업 및 지역들의 사회, 경제적 대응방안까지도 담긴 로드맵의 구성을 요청하였음

- 인도네시아 필수서비스 개혁 연구소(IESR)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앞으로 석탄 수요의 잠재적인 감소와 관련하여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해당 로드맵을 마련하여서 국가 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석탄 생산 지역들의 경제적인 변화 방향을 쥐야 한다는 것임.
-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전력 생산 부문에서의 제로 탄소 배출을,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면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제로 탄소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이 에너지 전환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며,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시기임. 이를 위해서는 화력 발전소의 양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연구소에 따르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비해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와 전세계 1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 나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임.
- 국제 에너지 위원회(IEA)가 발간한 2020년 세계 에너지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로 봤을 때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단가는 1kwh당 5.5~22.5센트 범위가 되어서 태양광 발전의 1.3~3센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되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전력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리스크임.
- 여기에 더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문서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잠재적인 좌초 자산에 대해서 밝히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루고 있음.
- 국가 에너지위원회(DEN)에서는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시나리오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연구 결과는 정부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공유될 예정임.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 Antara News)



## 인도네시아 정부, 투자자 설득을 위해 산불 관리를 다짐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잦은 산불과 이로 인한 탄소배출, 환경 오염 문제가 ESG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조정부에서는 산불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음

- ▶ 해양 및 투자 조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전으로 인한 산불 등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하였음. 2020년에는 산불 지역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정부의 관리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관리가 지속되면서 산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부담 요인을 낮추고자 한다고 부처의 담당관이 인터뷰를 하였음.
- ▶ 2020년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불 발생 면적은 296,942 헥타르로, 2019년의 1,592,010 헥타르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음. 산불 발생 면적은 전년대비 82% 가량 줄어든 것임. 2015년에만 해도 산불 발생 면적이 261만 헥타르에 달했었음. 이렇게 산불 발생 면적을 크게 줄이고 있지만,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서 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방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
- ▶ 기후 및 지정학 위원회(BMKG)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8월에 West Nusa Tenggara와 East Nusa Tenggara 지역 일부와 수마트라 섬 중부 지역에서 중규모~대규모 산불 가능성이 예보되고 있음. 현재 건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8~9월 경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 일부에서도 산불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발표되었음.